

독일의 성인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게르하르트 두 한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1. 1970년대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환경운동

성인을 위한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환경이라는 테마가 성인교육의 중요한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970년대에 일어났던 반핵운동을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폐기물 저장소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는 전 국민적인 반핵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은 정당이나 연방/주 정부에 더이상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원외야당”을 결성한 것이다.

이 시민의 자발적인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는 자신 스스로 대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시민들의 이해는 지역적인 문제이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치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갈등과 마찰은 언제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갈등과 마찰은 언제나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역주민들의 이해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침해의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 비행장, 공단건설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경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시에 집권정당이나 건설계획을 추진하려는 측의 대표에게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납득시

키기 위해서 주민들은 전문지식을 필요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초창기 환경세미나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인 행사로 시작되었고 주로 현안 문제들을 주제로 삼았다. 주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있었다. 예를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나 고속도로 건설에 드는 환경비용과 같은 것이었다. 그후부터 환경을 주제로한 행사는 정치적인 성과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민들 각자가 정보들을 수집했고 환경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모두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환경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Helger, 1987 참조).

이같은 환경학습은 기존의 성인교육과는 판이하게 다른 학습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성인교육은 교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그리고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는 증명서가 발부되게 되어있다. 이 증서를 받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증서가 없는 자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교육은 학습형태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직장내의 연수나 휴가를 이용한 어학 강좌와 같은 학습형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사들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구분이 없는 학습형태인 것이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또는 뭔가를 저

지하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번도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는 단순 노동자들이나 노동부들이 원자력 관계 로버자들이나 대규모 건설사업의 대표자들을 상대로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얻은 정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공단 건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을 언론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성인들을 위한 환경교육의 시발점은 1970년대 시민들의 환경운동에서 시작되었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운동의 주된 특징은

-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 했다는 것
- 그 결과 주민들 스스로가 정보를 수집, 분석 연구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민의 자발적인 운동은 그사이 크게 발달하여 70년대 말 이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녹색당”의 탄생을 가져 왔다. 현재 녹색당은 지방 의회와 주 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에 까지 진출해 있다. 그외에도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생겨났고 환경문제 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 예를 들면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환경연구소(Öko-Institut), 잡지 “환경 테스트”(Öko-Test), 각 도시마다 있는 환경상점(Umweltläden)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환경단체들과 협회, 모임, 시민운동연합회등은 통틀어서 간단하게 NGO 그룹(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으로 일종의 민간 환경단체로 칭해진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이 정착되면서 환경운동전문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환경자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환경전문가로 활동하거나 기존의 성인교육분야에서 전문 환경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매스미디어들도 거의 매일같이 환경과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독일의 의욕적인 기업들은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경문제를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de Haan, 1993 참조). 오늘날 토지와 지하수오염 문제를 교육이나 노후생활보장에 앞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평생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말만 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과 그 결과 생겨난 NGO조직을 제외하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성인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평생교양대학(Volkshochschule)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성인교육에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테마는 70년대와 비교해 보면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고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을 통해 생겨난 새로운 학습형태가 오늘날 성인 환경교육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de Haan, 1987 참조). 왜냐하면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 운동은 이후의 전반적인 성인교육의 형태를 바꿔놓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영향은 크게 두가지 형태의 성인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기존의 “국민평생교양대학”에 변화를 가져왔고 두번째로는 환경이라는 주제가 NGO 단체의 주력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여기서는 환경분야의 전문직을 위한 다양한 연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는 직업상의 성인교육은 상세히 다루지 않겠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이같은 현상으로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직업분야가 생겨난 것이다. 물론 이들 직업분야가 기획분야나 고정직은 아니다. 한 학기 내지는 여러 학기, 또는 몇년간의 시간제 또는 건당 계약제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환경분야는 이제 전문적인 직업 분야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2. 80년대와 90년대의 국민평생 교양대학에서의 환경교육

2.1. "환경을 주제로한 강좌"에 대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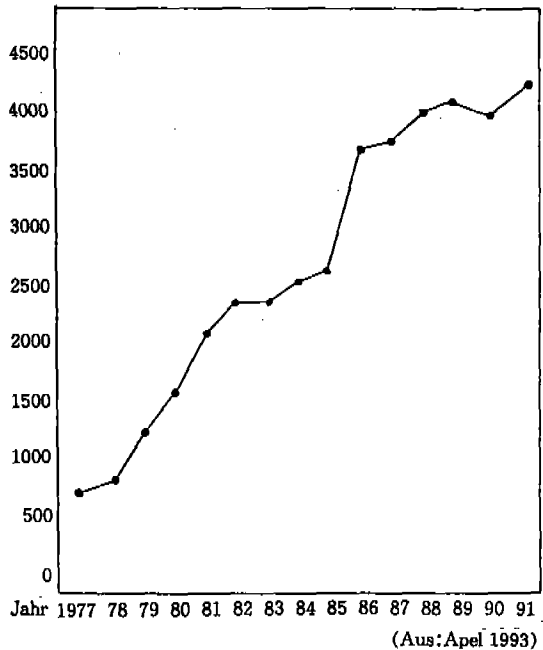
국민평생교양대학의 경우 직간접으로 지방자치단체(시, 군, 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평생대학은 성인이면 누구에게나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여기서 실시되는 강좌는 일반교양강좌로서 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평생교육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국민 평생 교양대학은 특정한 그룹이나 정당, 세계관, 또는 일정한 참가자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아니며 만인을 위한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들면 도자기 만드는 강좌에서부터 어학강좌, "당신의 개성을 살리십시오"등과 같은 강좌에 이르기 까지 주로 저녁시간에 실시되고 있는 이들 강좌는 매우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민평생교양대학의 수는 총 1100개 이며 (본 교과 분교의 수는 합쳐서 4500개가 된다.) 이들 평생교양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실험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H.Apel/E.Reich, 1990 ; Umweltbildung 1992, H.Apel, 1993 참조 - 다음의 통계수치는 H.Apel의 1993년 보고서에 근거를 둔 것이다.)

국민 평생교양대학에서 환경을 주제로한 강좌를 실시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다. 개개의 평생대학의 통계수치를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도표 1 참조)

환경을 주제로 실시된 강좌의 수가 예상외로 매우 적은데 그 이유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수학, 자연과학, 기술분야의 담당과장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강좌만을 보고 했을 뿐 다른부서에 실시하고 있는 환경강좌도 함께 보고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대학에서 실시된 전체 환경강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통계수치를 2배로 확대해서 계산해야 맞을 것이다. 1977년도 전체 평생대학(그당시 850개가 있었음)에서 실시된 환경을 주제로한 강좌수는 $750 \times 2 =$ 약 1500개의 강좌가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86년에 가서 이수치는 거의 5배로 증가하고 있다. 즉 $3800 \times 2 =$ 약 7600 강좌로 늘어났고 1986년 부터 강좌수는 별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도표 1> 년도별 국민평생교양대학의 환경 강좌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1992년의 수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7600개에 이르는 환경강좌는 전체 평생대학 강좌중 약 1.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평생대학마다 0.4%에서 3.6%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각 강좌마다 배당된 수업시간을 보면 2시간에서 12시간 사이이며 평균적으로는 강좌당 7시간이 배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강좌중 환경강좌가 차

지하는 미미한 비율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대변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EMNID 연구소는 1984년 부터 14일간씩 성인대상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사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1984년 중반 환경문제는 많은 다른 문제들, 안정된 직장, 건강, 노후대책(연금)등 보다는 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그후 “산성비”문제가 환경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1986년 4월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해에 화재가 발생한 Sandoz화학공장 진화작업시 사용된 소방수에 의한 라인강 오염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1988년 북해의 물개의 폐죽음이 연일 보도되자 환경문제는 설문조사결과 가장 중대한 문제로 나타났다. 그후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세기의 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통일문제로 넘어갔다(W.Tacke 의 요약 1991, 3페이지. 이하 참조).

2.2. 환경강좌의 주제

국민평생대학의 강좌의 분포도를 볼 것 같으면 주로 자연과학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즉 건강과 자연과학, 기술 등이다. 1992년 무작위 선발을 통한 조사에 따르면 강좌의 분야별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도표 2> 전문분야별 평생교양대학의 환경강좌가 차지하는 비율

	강좌수	비율%
자연/자연보호	656	47.0
정원가꾸기	152	10.9
자연보호(현장탐사 포함)	374	26.8
버섯연구(현장탐사 포함)	5	0.3
환경을 주제로한 견학 및 강연	100	7.2
아동교육	25	1.8
건강	303	21.7

	강좌수	비율%
자연 건강식	258	18.5
약초/민간요법	45	3.2
약초/민간요법		
자연과학, 기술	256	18.3
가정내에서의 환경보호	50	3.6
환경건축법, 위생법	50	3.6
물	32	2.3
환경기술, 유전공학 등	24	1.7
쓰레기	42	3.0
유해물질 측정	21	1.5
대체에너지	38	2.6
환경정책, 지구의 환경문제	164	11.7
환경/생태계	83	6.0
환경보호/도시의 생태계	21	1.5
지구의 온난화/오존층의 파괴	27	1.9
교통	20	1.4
농업	13	0.9
직업적인 환경교육	18	1.3
합계	1,397	100.0

(자료 : Apel, 1993)

무작위 추출 조사, 1992(구 서독지역)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강좌로는 자연보호(26,8%) 정원가꾸기(10,9%), 자연건강식(18,5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강좌들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환경교육의 기본 원칙이 여러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있고 환경정책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면 이들 세 분야의 대부분의 강좌들을 환경강좌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1992년 실시된 강좌의 내용과 그당시 방송과 언론쪽에서 다루었던 환경문제들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사회에서의 환경관심분야가 평생대학의 환경강좌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커다란 쟁점이 됐던 “기후재난” “오존층파괴” “포장쓰레기문제” 등도 환경강좌로는 크게 다루어지지않고 있다. 쓰레기문제도 전체 강좌중 3%를 차지했을 뿐이며 지구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도 전체강

과 중 겨우 1.9%를 차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을 놓고 평생대학의 환경교육이 긴급한 현안문제들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평생대학은 연일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중대사안으로부터 영향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그들의 강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또 한가지 이유는 참가자들이 환경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이외의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를들어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같은 환경문제에 특별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닌 이상 구대여 자신들의 여가시간까지 할애해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평생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강좌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이들 평생대학의 강좌 안내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평생대학의 강좌는 강좌안내책자에 나와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설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 신청자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즉 신청자의 수가 8~10명 이하일 경우 이 강좌는 개설되지 못하게 되는데, 환경강좌의 경우 “폐강비율”은 약 16%에 달한다. 이는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며 다른 어학강좌나 직업적인 연수강좌를 제외한 기타 강좌 경우에도 16%의 폐강비율은 흔히 있는 일이다.

폐강되는 강좌를 그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연보호/자연탐사 분야의 강좌는 10%의 폐강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건강분야가 13%, 자연과학과 기술분야가 30%, 정치적 사회문제 지구환경문제의 강좌는 36%라는 높은 폐강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 폐강비율의 증가는 바로 환경강좌의 추상성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 “자연이나 건강분야의 강좌들의 내용이 구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한데 반해서 자연과학과 기술분야 그리고 환경정책

적인 기초분야의 환경강좌들의 내용은 점점 더 이론화되고 있다.” (Apel, 1993, 페이지 13)

이같은 현상은 결국에는 이론에 치우친 환경강좌 자체를 아예 개설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폐강될 가능성이 높은 강좌 즉 정치적 사회문제 또는 지구환경에 관한 강좌들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를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흥미있는 강좌를 개설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평생대학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각 평생대학의 강좌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이론적인 환경강좌는 별반 인기가 없다는 것과 그와는 반대로 강좌의 내용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일 때 그리고 여가활용의 의미가 있을 때(예를들면 야생버섯채집등) 그 강좌는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엉켜있는 현상을 분석하는데에는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이같은 이론적인 환경강좌들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강좌들이 개설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험적인 분석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2.3. 환경강좌의 내용과 그 실 예

위에 언급한 분야에서의 환경강좌들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독일 국민평생교육대학의 강좌를 그 실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2.3.1. 자연보호 강좌(전체 환경강좌중 26.8% 차지)

이 분야는 환경강좌의 주제로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주제이며 독일의 경우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운동을 통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강좌이기도하다. 대부분의 환경보호강좌는 고향탐방을 중심으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찾아 들로 산으로 도보여행을 하거나 또는 회귀 동식물 탐사를 통해 자연

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한다. 이 중에는 오로지 동식물의 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보호강좌의 경우 단순한 자연보호차원을 넘어서서 국토의 이용문제와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이같은 강좌야말로 흥미있는 환경강좌라고 할수있는데 그 실 예를 들자면,

환경모델 “알고이” 지방 : 자연보호와 농업, 관광업의 멋진 조화

알고이지방/현대랑/오버알고이지방을 가보시면 여러분은 자연보호와 농업, 관광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분야들이 서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기 까지 어떤 노력이 기울여졌는지를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여러분은 농업과 관광업, 적극적인 자연보호활동과 임업 건강 숲의 보존등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들을 이해하기위해 우선 보도여행을 통해서 알프스지역의 알고이 경치를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그 지역의 농가와 치즈만드는 곳, 오래된 망치대장간을 둘러보시게 될것이며 많이 걸으면서 그 지역의 산림관을 만나보고 현대랑 마을의 민속문화 관리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숙소는 가격이 저렴한 개인 민박으로 일인당 숙박비는 아침식사를 포함 하루 25마르크이며 기타 경비로는 버스요금 6마르크, 자전거대여비 7마르크입니다. 이 경비는 강좌수강료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강좌의 형태는 민간환경단체나 재야단체에서 행하는 환경교육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항 참조). 이같은 현장탐사나 작은 여행을 통해서 자연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지역이 새로이 개척되기도 한다. 여기서 국민평생교양대학에서 다른 형태로의 성인교육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연연구와 자연보호강좌내에서의 견학및 현장탐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2.3.2. 정원가꾸기 강좌(전체 환경 강좌중 약 10.9%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한 평생대학의 강좌안내책자를 그 예를 들자면

취미정원사를 위한 이론과 실제

이 강좌에서는 환경 정원가꾸기에 대한 작업방법을 소개하고 지도한다.

이 같은 정원손질 방법의 목적은 토양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유해물질이 없는 야채와 과일을 수확하는데 있다.

퇴비 만들기과 부식토 만들기, 광물성 거름 만들기, 토양생물학, 토양검사에 대해 토론하며 유기적인 방법에 의한 해충방지가 소개된다.

지도는 전문정원사가 하며 강좌시간은 오후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시된다. 한번에 2시간씩 10번에 나누어 실시된다.

이 강좌는 여러주에 걸쳐서 실시되는데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형태는 평생교양대학의 전형적인 강좌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좌는 생태계의 대한 이해를 돕고 있지만 평생대학의 대부분의 정원가꾸기 강좌는 주로 화초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나무가지치기, 관목이나 장미가꾸기, 화단 의 흙을 부드럽게 하기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2.3.3. 건강에 관한 강좌(전체 환경 강좌중 21.7% 차지)

건강 강좌 측면에서 볼 때 환경문제는 무공해 건강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 강좌의 경우를 살펴보면 환경문제와 직결된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 자연건강식 강좌에서 주장하는 바는 자연건강식은 비용이 적게들며 쉽게 몸무게를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고 요리도 간단하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식 강좌는 특정한 재료와 요리방식을 소개하는 일종의 요리강습일뿐이며 자연식 요리강좌를 진정한 의미의 환경강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리지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특별 연수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한 자연식 강좌를 소개하면,

자연건강식이란

빠르고 간단하게 준비할수 있으며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건강식이다. 아침식사를 위한 건강식, 간식, 점심과 저녁을 위한 다양한 건강식을 배우며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요리법에 대해서도 배운다.

6번의 요리실습 시간을 통해 생식, 국, 메인 메뉴와 후식등을 직접 만들어 본다.

각 실습시간의 첫 시간에는 자연건강식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배운다.

**2.3.4.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의 환경강좌
(전체 환경강좌의 18.3% 차지)**

우선은 이분야의 전형적인 강좌형태를 살펴 보면 : 매번 2시간씩 10번에 걸쳐 실시되며 참가자들 자신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우선 수동적인 자세로 주로 경청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강의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 참가자들이 직접 실습을 해본다. 예를들어 자연간강식을 직접 요리해 본다든지.

실제 강좌를 하나 소개해 보면

가정에서의 환경보호

환경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환경보호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 합니다.

물론 가정이 환경과 자연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환경보호가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인식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강좌는 “용기있는” 여성들과 남성들을 위한 강좌이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찾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 세탁제, 청소제, 청결제 -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 깨끗하다는 판단의 경계는 어디인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가?
-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 쓰레기와의 전쟁 -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만들지 않기

- 환경의식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 환경의식을 통한 식품 선택
- 정화처리 시설의 견학
- 자연보호를 위한 건강식이란?
- 자연건강식의 요리 실습

위의 강좌를 보면 한편으로는 강좌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꺼번에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들을 나열해 놓음으로써 신청자들을 질리게 하고 있다. 이 강좌는 결국 폐강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이 강좌가 학교에서의 따분한 수업을 연상시켰고 결국 흥분한 신청자를 얻지못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에는 수 많은 흥미있는 강좌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환경 문제, 화학제품을 다루는 문제나 건강 문제, 에너지절약 문제, 수도물이나 쓰레기 문제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 지고 있다. 예를들어 **환경건축법 강좌**의 경우는 특정 건축자의 유해성을 다루고 있고 건축비 절감방법의 실례를 소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건축을 소개한다.

이분야 환경강좌의 또 다른 형태로는 **유해물질에 대한 강연**이 있다.

도르트문트의 대기청정 상태

현재 도르트문트의 대기오염 정도는 20년전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진 상태이기는 하나 최근의 대기청정도 측정 결과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아황산가스나 매연 등 기존의 유해물질만 가지고 대기청정도를 논할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산업시설들은 전과 비교하여, 많이 정화된 상태이지만 늘어나는 교통량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질산화물, 오존, 벤젠, 폴리사이클 방향성 탄화수소물(polyzyklische aromatische Kohlenwasserstoffe) 등...

본 강연에서는 현재 도르트문트의 대기오염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와 함께 주요 유해물질과 대기오염의 주범들을 논하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감소 방안을 소개한다.

이 강좌는 여러날이나 여러주에 걸쳐서 실시되는 강좌가 아니라 하루 저녁 한번의 강연으로 끝나는 강좌인데, 그 목적은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의미에서 참가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이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이를 몸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강좌는 평생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는 하나 소위말하는 “환경상품점”(Umwelt den)에서 개최되었는데, 대부분의 “환경상품점”은 시민환경운동의 결실로 생겨난 경우가 많으며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거나 또는 지역 환경문제를 고발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곳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2.3.5. 정치적 사회문제나 지구환경 문제를 다루는 강좌(전체 환경강좌의 11.7% 차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는 중요한 정치적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강좌는 그다지 많이 개설되지 않는 강좌이다. 강좌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시티투어(city tour)에서부터 자전거 여행 또는 환경세에 대한 논쟁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강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은 예를들어 지구의 환경보호 강좌인 경우 토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기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눈다는 점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강좌는 오후 세미나인데 자동차 문화를 반대하면서 그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문강사를 초빙함으로써 이 강연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신청자들에게는 더욱 흥미 있는 강좌가 되고 있다.

자동차 문화로부터의 탈출

인간에게 기동성을 부여해 준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철도였다. 자동차는 그에 못지 않은 편리성을 가진 철도 교통과 비교해 볼 때 환경파괴와 함께 교통업계에 경제적 비합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있는 교통정책에 따를 것 같

으면 우리는 현재 일반 교통은 30%, 붐과교통은 50%, 항공교통은 100% 증가된 기동성을 가진 자동차 문화속에서 살고 있다. 이에대한 대체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의 기동성에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 “자동차를 사지(타지)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과 “제대로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빗나간 교통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강사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자동차 문화”, “철도와 자동차열병” 등의 책을 저술함으로써 이 분야에 명성을 얻고 있다. 강사는 강좌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참가자들과 토론을 한다.

결론: 평생대학의 강좌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 강좌들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이 학교 수업이라는 전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수업이 바로 참가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식 생활에 관한 문제인 경우 또는 청소제의 사용에 관한 문제일 경우 평생대학에서의 강좌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평생대학은 초창기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환경운동에서 자극을 받아 환경이라는 분야를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들 나름대로 이를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시민 환경운동과 비교해서 평생대학의 환경교육이 다른 점은

-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출발 정치적 행동을 목적으로했던 환경운동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환경운동으로 전환시킨 점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었던 환경문제를 참가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상 생활속에서 누구나 접하게되는 일반적인 환경문제로 전환시킨 점

또 한가지는 평생대학에서의 환경교육이 그 대상자의 나이나 교육수준, 출신성분 등으로 볼 때 시민 환경운동 보다는 훨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한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에 있어서 평생대학은 환경의식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봐야 할 것이다.”

3. NGO나 민간 환경단체 (Freie Trägerschaft)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3.1.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 환경교육 시설들

평생대학 환경 강좌의 성격이 가급적 정치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자연보호 분야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시민운동의 결실로 생겨난 “사실 민간 교육기관”(Freie Bildungsträger)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운동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이들 교육기관은 대부분이 시민운동의 결실로 생겨났고 주로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수원과 같은 형태로 단체를 위한 회의나 집회를 할 수 있는 MT장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한 단체에서 큰 농가를 구입하고 집회 장소와 숙소로 개조하여 환경집회나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고용자는 누구나 1년에 1주일간 평생교육을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교육시설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강좌가 평생교육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그리고 참가자의 수가 많은 경우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내용도 평생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성 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많다.

그외에는 역시 일상 생활속에서의 환경 운동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이들 재야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시설들중 대부분이 기존의 다른 교육기관들과 공동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이들 기관들이 실

시하고 있는 환경교육도 그 내용이나 형식, 목적에 있어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아직도 차이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민간단체는 환경정책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자신들의 입지가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이상적인 경우 이들 시설 교육 기관들은 환경의식이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참가자들에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시설들은 태양집열기와 유기적인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식사는 자연식, 채식위주로 하며 쓰레기는 전혀 만들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정해 놓고 참가자들은 이 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들과 함께 식사 준비도 하고 밭에 나가 일도 직접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실시되는 환경교육은 특별히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이나 풍력을 이용한 시설등을 따로 견학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곳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직접 기거하면서 이들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연수원 정원과 밭을 가꾸면서 직접 퇴비를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되고 물을 절약하는 것도 직접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 실례를 소개하면

태양집열기와 유리지붕으로 만들어진 원천의 환경파트너 집에서 연수를 하십시오

제대로 갖추어진 환경은 세미나나 기타 다른 행사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저희 환경파트너 집을 여러분의 행사장으로 사용하십시오. 미래지향적이며 두루두루 환경을 생각해서 설계된 이곳은 직원연수나 세미나, 회의 등 여러 단체 행사에 매우 적합한 장소로서 40명의 인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식사도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에게 자연 건강식과 함께 철저한 검사를 통한 유기농법에 의해 수확된 야채

로만 마련하는 채식 뷔페로 준비해 드립니다.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규모와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환경 의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활 양식을 훈련시키고 있는 시설 교육 시설은 약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중에서 연중 내내 또는 일정 코스의 훈련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3.2. NGO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봐서 가장 흥미있는 환경교육은 역시 재야 환경단체나 협회 또는 아직도 남아있는 초창기 시민환경 운동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정확한 통계적 수치로 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추측을 통한 평가만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ALTOP - 환경단체 주소록 중 재야단체 주소록(Alternative Branchenbuch)을 볼 것 같으면 약 500개의 단체와 조직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이 500개의 단체 주소는 물론 등록된 모든 단체의 주소는 아니다. 예를들어 베를린의 경우 재야단체명이 단지 12개 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Grünstift”라는 잡지에는 약 240개의 단체나 회합명이 나온다. 이를 볼 때 240이라는 수치가 아마도 베를린에 위치한 전체 재야단체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합이나 단체에서 자체 환경행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Grünstift”와 “Alternatives Branchenbuch”사이의 통계수치가 10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속단체나 회합등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환경행사를 갖고 있는 전 독일의 민간환경단체 수는 약 5000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사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내기가 쉽지 않은데, 베를린의 행사칼렌다를 살펴보면

매일 3~7개의 환경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잡아 일일 5개의 환경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볼 때 베를린에서만도 1년에 1750개의 행사가 열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한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강연+토론)에서 5시간(견학이나 탐방)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평균잡아 한 행사당 소요시간을 3시간으로 볼 때 베를린의 경우 연간 총 5250시간의 환경강좌가 열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베를린의 경우 100개의 강좌가 열린다고 볼 때 전체 독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연간 베를린의 총 강좌시간에 약 50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전 독일의 일일 환경강좌의 수는 250개이며 연간 강좌시간은 262,500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어렵잡아 평생대학의 연간 환경강좌 시간 53,200시간과 비교해 보면 연간 NGO와 평생대학의 환경강좌시간 비율은 5:1이 되는 셈이다.

재야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강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평생대학에서의 환경강좌와는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통계수치는 없다. 베를린의 행사칼렌다를 기준으로 본인의 조사에 따르면(도표 3참조, 오른쪽 데이터) 직업적 환경연수분야에서 서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국민평생교양대학과 NGO의 비교

민간단체와 평생대학과의 비교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조사 당시 계절을 고려하지 않았고(조사 시기: 겨울과 봄) 나뭇대로의 특수함 문제(예 교통난)를 갖고 있는 대도시 베를린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수치는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는데에는 나뭇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몇가지 언급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도표 3> 평생대학과 NGO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강좌의 비교

	평생대학	비율 %	NGO	비율 %
자연/자연보호	656	47.0	237	37.1
정원가꾸기	152	10.9	16	2.5
자연보호(현장탐사 포함)	374	26.8	70	11.5
버섯연구(현장탐사 포함)	5	0.3	0	0
환경을 주제로한 견학 및 강연	100	7.2	113	17.7
아동교육	25	1.8	38	5.9
건강	303	21.7	6	1.0
자연 건강식	258	18.5	3	0.5
약초/민간요법	45	3.2	3	0.5
자연과학, 기술	256	18.3	149	22.3
가정내에서의 환경보호	50	3.6	7	1.1
환경건축법, 위생법	50	3.6	12	1.9
물	32	2.3	27	4.2
환경기술, 유전공학 등	24	1.7	32	4.6
쓰레기	42	3.0	21	3.0
유해물질 측정	21	1.5	17	2.7
대체에너지	37	2.6	33	4.8
환경정책, 지구의 환경문제	164	11.7	253	39.6
환경/생태계	83	6.0	67	10.5
환경보호/도시의 생태계	21	1.5	69	10.8
지구의 온난화/오존층의 파괴	27	1.9	34	5.3
교통	20	1.4	72	11.3
농업	13	0.9	11	1.7
직업적인 환경교육				
직업적인 환경교육	18	1.3	0	0
합계	1,397	100.0	645	100

• 왼쪽 데이터 : 무작위 추출 조사 1992(평생대학 구 서독지역)

(자료 : Apel, 1993)

• 오른쪽 데이터 : 베를린 행사 칼렌다 기준(1993 1. 2~4.30)

3.3.1. 자연보호, 건강,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의 환경 강좌

눈에 띄는 현상은 자연탐사 내지는 자연보호 분야의 환경강좌의 경우 재야단체에서는 평생대학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7.1% : 47.0%). 그러나 평생대학보다 재야단체가 보다 더 많은 견학이나 탐방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생대학의 강좌는 주로 전통적인 학습형태

인 일정한 장소, 학교나 강의실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항상 강의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재야단체는 오히려 이같은 끈경에서 현장견학이나 도보여행, 자연 거여행등을 통한 환경강좌라는 큰 장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NGO의 경우 정원가꾸기 분야의 환경 강좌(10.9% : 2.5%)는 빈약한 반면 자녀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1.8% :

5.9%).

또한가지 뜻밖의 결과는 건강분야에서의 환경강좌 비교인데 이 분야에서는 평생대학이 도맡다 시피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21.7% : 1.0%)

결정적인 이유는 재야단체가 갖고 있는 시설 부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민간단체는 보통 가장 큰 강의실의 경우가 50평방미터 정도이며 대부분이 개인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자연건강식 요리 강좌에는 충분한 넓이의 공간과 시설이 필요한데 평생대학의 경우는 직업학교나 일반교육 시설들을 저녁시간에 이용할 수 있지만 재야단체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의 강좌인 경우는 특별한 차이는 눈에 띄지않고 있다(18.3% : 22.3%) 대체에너지, 유전공학분야에 있어서 재야단체가 평생대학보다 더 많은 강좌를 실시하고 있기는하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큰 편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는 자연히 유전공학적 실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마련이다. 이 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점에서 볼 때 재야단체는 시민 환경운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2. 정치적인 사회 문제, 지구환경에 관한 강좌

환경강좌중 양 기관의 차이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평생대학의 경우 이 분야의 강좌가 매우 빈약한데 반해서 NGO의 경우는 이 분야에 큰 역점을 두고 있다(11.7% : 39.6%). 이는 바로 시민환경운동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들은 교통정책에 대해 적극 나서서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뜻을 펼치거나 또는 지구의 온난화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거나, 또는 도시생태계의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는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

는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실제 행해졌던 강좌와 행사들을 소개해 보면

환경보호/도시의 생태계

어린이 놀이터에 독물질이?

“베를린의 놀이터중 3분의 2가 발암물질인 PAK(polyzyklische aromatische Kohlenwasserstoffe 폴리사이클 방향성 탄화수소)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는 녹색당 출신 의원인 크리스티안 폴츠의 설명입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희 구역의 어린이 모래놀이터의 PAK수치는 베를린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첫번 홍보강연은 “환경 및 자연 보호협회”(Bundes für Umwelt und Naturschutz : BUND)회관에서 열립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동기가 되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들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이 생겨난 그룹은 본래의 의미에서 시민환경운동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오염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난 후 지역적으로 이 같은 오염상태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즉 놀이터의 흙을 교체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할 것이고 의사에게 건강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할 것이다.

주택건축과 지역개발

주택건축과 도시개발은 베를린시 전체와 각 행정구역의 지역개발 근본 목표가 일단 먼저 분명하게 제시된 다음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이 자연경관과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위한 한계선은 어디이며 이 한계선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시 전체에 해당되는 “환경지역개발계획을 위한 새로운 안”이 소개되어질 것이다.

이 저녁강연회는 전문가가 강사로 최빙되며 환경상품점이 “하안호수(Weißensee)”에서 열린다.

이같은 개별행사들은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문제를 주택지의 확장사업이라는 지역문제와 연계해서 다루고 있다. 이 강좌안내문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강좌는 지역정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강좌이며 장소가 환경상품점이라는 것은 이 강좌는 녹색도시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지구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는 경제

환경제품의 생산을 통한 환경보호는 90년대 환경정책의 핵심으로 발전했다. 몇몇 문제점들을 선정 환경생태생태의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환경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계는 어디이며 국내의 상품에 대한 환경수지를 계산하는 법과의 의미,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장소: 환경 및 자연보호협회(BUND) 환경센터

이 강좌의 안내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강좌는 일반인을 위한 강좌가 아니라 전문가를 위한 강좌임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졸업자나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남미의 개발도상국가문제를 다루고 있는 재야단체등을 겨냥한 강좌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강좌는 베를린같은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겨냥한 전형적인 강좌이다.

교통

도시교통과 건강

강연과 토론

“어린이와 환경”이라는 단체에서는 “독일 자전거를럼”회관에서 보건국의 엘제서 여사를 모시고 도심지교통과 자녀의 건강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암 등 기타 질병유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감한 어린이의 신체야 말로 환경오염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와 그 이용자들은 이 도시의 어린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의 항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어린이도 남김없이 자동차로 인해 병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어나는 자동차교통에 제재가 가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위에 예를 든 강좌 역시 재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강좌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어린이의 건강침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강좌는 사회적 관심사를 주나 국가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NGO가 실시하고 있는 성인교육의 뿌리임을 보여 주고 있다.

4. 결 론

재야단체나 평생대학의 강좌는 그 나름대로 모두가 1960년 이후 실시되었던 독일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의 기본사상인 60년대 당시 사회사상가 랄프 다렌도르프가 주창했던 “교육은 시민의 권리이다”를 표현해 주고 있다. 국민평생교양대학의 강좌가 무료로 실시되거나 저렴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민주주의 주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재야단체의 활동 역시 이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지배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수많은 지역적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들을 고발하고 토론하는 강좌들을 개설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은 시민들의 권리가기 때문이다.”

재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과
-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고
- 환경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점등이

이미 초창기의 시민환경운동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 NGO의 주요목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좌의 테마들은 많이 바뀌었다. 원자력은 더 이상 쟁점이 아니다. 대신 보호되어야할 자연 경관이나 근거리 교통, 환경경제등이 주요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전문가들이 생겨났다. 이제는 서로 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리는 것과 핵심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얻어내는 일등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저지하고자 하며 변화시키고자하며 해결책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록 이들의 방법이 전문적인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환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일 때도 있지만.

이처럼 평생대학과 재야단체의 강좌는 서로 서로를 잘 보완해주고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인 평생대학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하는 반면 정원가꾸기나, 자연보호, 자연건강식 분야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전체 강좌중 56%가 이 분야의 강좌이다).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더 많은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재야단체는 전통적인 분야인 자연보호와 현장탐사/견학 분야도 활발하게 다루고 있으나 주로 환경에 관한 정치적인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재정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인교육기관으로서의 NGO의 계몽 활동과 그 중요성은 흔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적인 지원의 부족에 있다. 재야환경단체는 “환경교육은 시민의 권리”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지만 공공 성인교육 기관과 비교해 볼 때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